

해남 초대형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발족

1조원 규모 '산이·마산 집적화단지' 국내 첫 사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재생에너지 공급 구상 발전 수익 '햇빛연금' 주민 환원 최우선 과제 추진

초대형 영농형 태양광의 국내 첫 사례가 될 '산이·마산 영농특화단지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발족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이·마산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는 투자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 지역민과 영농특화단지의 4개 농업회사법인(특화단지협의체)이 함께 지역 발전 뜻을 모아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추진 주체로 나섰다라는 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에 위치한 영산강 III-1지구 간척지의 영농특화단지 505ha(약 153만평)에 4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 해남 기업도시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농지를 보전하는 영농형 방식으로 추진해 기존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지속

하면서 발전 수익을 농업회사법인과 지역 주민이 공유할 수 있어 식량과 에너지를 수확하는 미래 농촌의 새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단지협의체는 유기농 조사료를 생산하고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유기농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산이·마산 집적화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 유치, 주민 소득 증대 등이 가능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기후 위기 변화 대응의 최고 모범 사례로 만든다는 목표를.

지난해 8월 국내 최대 10조원 규모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투자 유치도 전남도가 재생에너지100 전력을 공급을 약속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번 사업도 데이터센터 투자실현의 성공을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8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열린 '해남 산이 태양광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발족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끄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민관협의회는 27개 인접 마을 전체 주민의 사업 추진 동의를 받고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도와 해남군 소속 공무원 5명, 주민 대표와 특화단지협의체 16명, 전문가 8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집적화단지 사업 전반을 협의하고 특히 주민 참여 확대와 발전 수익

을 지역 주민과 농업회사법인에 햇빛연금으로 최대한 환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평균 60kW 수준의 소규모 실증 단계인 영농형 태양광의 대규모 사업화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 및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 스마트 팜 조성 등 위한 정부와의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에 총괄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40MW 초과 발전시설 설치 구역이다.

전남도와 해남군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연내에 집적화단지를 신청하고 2025년 단지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각종 인허가 등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조성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산이·마산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추진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하는 전남도 입장에서 든든한 일"이라며 "이번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지역 전반으로 사업 모델을 확산토록 함으로써 전남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주민 반발' 본량동, 자원회수시설 신청 철회

시, 나머지 6곳 대상 타당성 조사...상반기 후보지 발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 유치를 희망한 광산구 본량동이 주민들의 반발로 유치 신청을 철회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본량동의 한 주민이 이웃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9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타당성 조사 계획 공고 등 입지 평가 절차가 본격화하자 본량동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시는 지난 1월29일까지 60일간

진행된 입지 후보지 재공모에 본량동을 포함한 총 7곳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공모에는 개인이나 단체도 참여할 수 있었다.

광주시는 본량동 신청자가 공모 참여를 철회함에 따라 남은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지역은 서구 매월동, 남구 송하·양과동, 북구 장등·본촌동, 광산구 삼거리 등 6곳이다. 광주시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주민대표,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

원회가 입지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입지를 고시할 방침이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법적으로 지원하는 편의 시설과 광주시 차원의 특별 지원까지 1천억원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광주시는 2000년 시행될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하루 처리량 60t, 부지 면적 6만6천㎡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총 공사비 20% 이내의 주민 편의 시설 설치도 포함된다. /박성진 기자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케이블TV·유튜브 홍보 지원

도, '동네가게 함께가게' 캠페인...홍보 영상 무료 제작

전남도는 10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가게를 케이블TV와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는 '동네가게 함께가게' 캠페인 참여 희망 소상공인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네가게 함께가게' 캠페인은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남도와 LG헬로비전이 협약해 시작한 사업이다. 2023년까지 총 2천개소에 TV방송, 유튜브 등 비대면 홍보를 지원했다.

올해는 30개 업체의 소상공인을 대

상으로 30초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 LG헬로비전 호남·아라 방송의 시청률 상위 30개 채널에 1개월간 4만 뷰 이상 송출한다. 유튜브 채널 헬로전남도도 동영상을 게시해 소상공인 홍보와 함께 지역 상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홍보 지원 대상은 도박·사치 향락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을 제외한 전남지역 모든 소상공인이다.

홍보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신청서를 도, 시·군,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공모란에서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원이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3월부터 소상공인 가게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한다. 촬영이 끝나면 곧바로 LG헬로비전에 방영된다.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동네가게 함께가게 캠페인은 3교 현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판로 개척,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홍보 지원 프로젝트"라며 "특색있고 지역 고유의 색을 유지한 전도유망한 소상공인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김영록 지사 "蘭 산업 육성 앞장" 화순 난 명품박람회서 재배온실 지원 등 약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화순 나옴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4 화순 난 명품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난 산업 육성의지를 다졌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구복규 화순군수, 신정훈 국회의원, 강종만 영광군수, 윤명희·류기준 전남도의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진홍수 한국난문화협회 이사장, 김종표 한국동양연합회 이사장, 이윤진 한국난보존협회 이사장, 양위순 화순난연합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화순 난 명품 박람회'는 화순 자생 촌란의 우수성 홍보와 난 문화생활 대중화를 위한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로 개최하다 올해는 국제 규모로 확대해 지역민의 난 재배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난 특구 지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람회에선 지난 8일 작품 심사를 시작으로 개막식, 우수작 시상, 난 경매, 전시·체험프로그램,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와 노란빛, 붉은빛 등 갖가지 아름다운 색상의 한국 촌란 등 1천여점이 전시된다.

전남도는 한국 난이 취미를 넘어 문화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대량 증식을 위한 현대화된 난 재배온실 구축을 위해 지난해 1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한국 난 재배 자동화 온실 신축, 종묘 구입, 자재 구입 등을 지원한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 [월세110% 돈덩이매물] 대지3,170㎡ 원룸60개 주인전원주택165㎡ 보4,500 월세1,480 매가14억3,800
- [50%급처분] 신세계 백화점 6차선 대로변1,650㎡ 급매 3.3㎡ 당2,000만원 주상복합최적
- [재개발예정정문앞] 중흥동 대249㎡ 3층건물 급매5억8,000 시세50%급매물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회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